

이 보도자료는 10월 22일 배포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금) 조간용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 매

과 장	이 진 섭	509-6036
팀 장	남 점 숙	509-6411
담당자	이 희 성	509-6416

문화도시 부평, 서브컬처 기반의 문화 창업 실험 '지하×실험가게 프로젝트' 추진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이 주관하여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3일간 부평지하상가 모두몰에서 서브컬처 기반의 문화 창업 실험인 '지하×실험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브컬처란 그래피티, 스케이트보드, 전자음악, 펑크락, 힙합 등 소위 하위문화(비주류 문화)를 말하며, '지하×실험가게 프로젝트'는 서브컬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도시 부평의 프로젝트다.

본 프로젝트는 부평지하상가 모두몰과 (주)마플코퍼레이션(온라인 판매 대행 플랫폼 '마플샵')이 협력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진행한다.

오프라인 행사로, 부평지하상가 모두몰에서는 8~10개의 공실을 활용해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서브컬처 콘텐츠로 구성된 실험가게를 열어 다양한 문화 체험 및 볼거리들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DJ공연과 이색적인 전자음악 공연을 즐기고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와 협업하여 그래피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및 다

양한 참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각 실험가게에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제작한 개성있는 티셔츠를 전시할 예정이며 전시 상품들은 온라인 판매 대행 플랫폼인 ‘마플샵’을 통해 구매도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 실험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을 만들고 향후 문화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험가게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또는 전화(☎032-500-2045)로 문의하면 된다.